



■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 제주 유흥시설 가보니...

방역지침 지켜도 밀폐공간 감염 우려 상존

클럽·콜라텍 등 유흥시설
정부 한달간 운영자제 권고
운영시 신분증 꼭 확인토록
행정시 어제부터 현장 점검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주가 감염자가 제주 등 전국에서 속출하며 제주도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도내 유흥시설들이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해도 밀폐된 공간에서 여럿이 춤추고 술을 마시는 유흥시설의 특성



도내 한 클럽 입구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문미숙기자

정도로, 코로나19 상황 전에 견주면 70~80% 감소했지만 관광객을 중심으로 찾는 이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었다. 클럽측은 정부 방침에 따라 관리 대상에 출입자 이름과 전화번호 기재 외에 8일부터 신분증 확인을 추가했는데 일부는 "이렇게까지 하면 서..."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에서 3~4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손님이 줄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50여일간 휴업했다 이달 6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는 제주시 소재 한 콜라텍은 9일 단골을 중심으로 손잡을만큼 손님이 찾아

고 했다. 주간영업으로 오후 5~6시면 문을 닫는다는 이 콜라텍은 "방역 지침대로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 그냥 가버리는 이들이 더러 있는데, 신분증까지 제시하라고 하면 손님들 반응은 안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 후 관광객 등 다른지방 손님은 안반고 있어 소수의 단골손님 위주로 찾는"이라며 "앞으로 신분증도 확인하라고 하면 그렇게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도내 유흥시설 몇 곳을 둘러본 결과 나름대로 방역지침을 이

행하려는 모습들이 확인됐다. 하지만 "사교댄스를 추는데 방역마스크를 끼면 숨이 찰 것"이라는 콜라텍 관계자의 얘기가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지만 술을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처럼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밀집하는 클럽 특성상 집단 감염의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내 클럽은 2곳, 콜라텍 7곳, 유흥주점은 778곳이다. 중앙안전재단대책본부는 이태원 클럽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달간 전국 클럽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연락처 기재의 허위작성을 막고 상호성을 높이기 위해 입장시 신분증 확인과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강화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5개 점검반(제주시 12개반 24명, 서귀포시 13개반 26명)을 꾸려 10일 오후부터 유흥시설의 강화된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자치경찰, 불법숙박업소 30여곳 적발 미분양 아파트로 관광객 상대 불법 숙박 영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불법숙박업소 30여곳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내 A업소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제주시 내 미분양 아파트 5개 세대를 불법적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약 4개월 간 불법영업을 벌여왔다.

B업소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단독주택 내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숙박예약사이트에 홍보하며 약 6개월 간 불법 운영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들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상세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들을 확인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 전개해 도내 건전한 숙박업 보호에 힘쓰는 한편, 불시 게스트하우스(민박) '야간 음주파티' 집결 활동을 병행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는 법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나 화재에 취약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영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및 방역 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원기자



"무분별하게 출석 요구... 노조 탄압"

BCT 노동자 경찰에 반발

운송로 현실화를 요구하며 한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지역 별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노동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제주도청 출입문 파손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되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시객 바다에 빠져 숨겨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해안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구조됐지만 사망했다.

10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 인근 해안에서 A씨가 낚시를 하

이들은 "경찰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조합원과 (도청 출입문 파손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조합원에게 출석을 강요하고, 조합원 전체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 정보'로 분류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며 "무분별한 출석요구로 노조 탄압에 앞장선 관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기자

위해 갯바위를 이동하다 물에 빠져면서 일행과 인근을 지나던 J호 선장이 이를 발견, 구조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양돈농가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빈발

도, 농가 112곳 대상 444회 조사결과 82회 초과... 야간시간대 집중

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 1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분기 악취실태조사 결과 총 444회의 조사 횟수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는 82회(약 18.5%)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은 59회(약 16.2%), 서귀포시 지역은 23회(약 28.8%)가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의뢰해 지난 2월 3일부터 3월 31일 사이 악취관리지역 112개 양돈농가 및 인근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분기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주변 마을별 각 구역의 부지경계선에서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지점으로 선정하고 조

사향목으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4회(일), 인근마을 8회(일) 복합 악취 시료를 포집했다.

1분기 악취관리지역 농가 실태조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농가는 59개소(제주시 46, 서귀포시 13), 30% 이상 초과율을 보인 농가는 21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8)였다.

복합악취 최저농도는 모두 3배수로 나타났으며, 최고농도는 제주시 조천읍에서 100배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서귀포시 대정읍 46배수, 제주시 한림읍 31배수 순으로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초과횟수 총 82회 중 오전, 오후 각 14회(약 17.1%), 야간 54회(약 65.8%)로 야간시

간대의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개 악취관리지역 주변마을(제주시 14, 서귀포시 5) 현황조사 결과 복합악취 농도는 3~20배수 범위이고, 주로 10배수 이하로 조사됐다. 최저농도는 3배수, 최고농도는 20배수로 나타났으며 최고농도 가장 높은 마을은 서귀포시 대정읍(20배수)이었다.

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주변 마을에 대한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 악취저감 방안 지속 강구 및 체계적 데이터 구축을 통해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30
2020 제30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단체연합전

The 30th Collective Exhibition of Photo Artist in Jeju

제주도 사진단체연합전은 매년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단체들이 함께 주제를 가지고 펼치는 연합행사입니다. 올해는 "제주의 오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과 성원을 바랍니다.

녹색사진연구회 | 모술포카메라클럽 | 모실라 | 백록사우회 | 심다사친동호회
섬 빛 사진동호회 | 성안사진클럽 | 제주기독사진가협회 | 제주민속사진연구회
제주상록사진학회 | 제주영상동인 | 제주키메라클럽 | 제주탐라사진회
제주환경사진연합회 | 칠십사사우회 | 림포 | 로스나인 | 한국국제사진교류회
한국국제사진영상교육협회 |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프로사진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 한국환경사진협회제주본부

2020. 5. 10(일) ~ 8. 31(월)
"제주의 오름"
제주시시 갤러리(온라인 전시)
www.gallery.jejujupask.com

주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재단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www.jejujupask.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주시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